<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지난날 하나님이 해 준 것, 성령님이 해 준 것, 성자가 해 준 것, 주가 해 준 것>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죽는다.**

2. **지난날을 잊으면, 은혜가 없고 불만불평이다.**

3. **지난날을 잊으면, 육적인 자가 되어 버린다.**

4.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랑하고 살아도, 지난날을 잊어버리면 남이 된다.**

5.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잊으면 '사탄의 지체'가 된다.**

6. **<지난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7. **<은혜가 없을 때>는 지난날을 생각해라. 지난날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고 환난이 연속돼서 하늘까지 닿던 희망이 땅에 납작하게 붙어 다닐 때, 생명들이 시험에 들어서 나가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난날같이 도와줄게. 걱정 마. 저런 때가 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다. 자고 나면 또 일어나진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

8. **지난날을 생각하면 수백, 수천 가지가 '은혜'가 된다. <은혜>**

와 〈사랑〉이다.

9. 항상 〈지난날〉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10. 지난날 선생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줄 때, '그와 같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구나.' 함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모두 죽음에서 다 구해 주셨다. 한 사람도 구해 주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난날 죽을 고비에서 살려 주지 않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가서 담대히 이야기해 주어라. 그러면 생각나게 해 주리라." 하셨다. 모두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11. 〈죽을 고비를 따질 때〉는 크게 나눠서 '사생애 때' 한 번, '공생애 때' 한 번, '부활 생애 때' 한 번 - 총 세 번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때' 한 번, '신약 때' 한 번, '성약 때' 한 번 있다. 이같이 세 단계로 따진다. 저마다 기본적으로 죽을 고비가 세 번씩 있었고, 그 외에도 너무 많았다.

12. 〈선생〉은 죽을 고비가 60번 이상 있었다. 〈70일 금식 기도를 할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전반기 때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도 전하니 죽을 고비가 많았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 주신 것이다. 또 전쟁터에 갔을 때 죽을 뻔했던 적도 많았다.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다쳐야 알

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것은 아무도 모른다. 가령 차를 타고 가다가 꼭 사고 날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 하자. 본인이 아는 것도 있지만, 아예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는 본인이 모른다는 것이다.

13.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가 있었다. 부모가 이미 포기하고 묻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쳐다보니 그때 아기가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었다고 했다. 다시 쳐다보고 가만히 두니,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났다고 했다. 그때 선생 어머니가 죽은 시체라도 마지막으로 보자고 해서 봤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살았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어머니는 선생의 명이 길다고 '명' 자로 이름을 지어 주셨다. 어머니는 '명(命)' 과 '명(明)' 을 잘 모르고 그리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명(明)' 이라 하시며 그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한 이름대로 그 누구보다도 죽을 고비에서 많이 살아났다.

14.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해도, 선생이 마지막으로 본다는 입장으로 전화해 보면 "선생님 죄송해요. 할 일을 못 했어요."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자들은 '산 것' 이다. 눈이라도 뜬 것이다. 그러니 포기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살린 사람이 많았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것, 온 인류의 구원 문제>를 선생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15. 하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켜보는 데서는 사람

이 죽지 않는다.” 하셨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늘 선생을 ‘사고가 나서 생명들이 죽을 위치’에 보내시어 이들을 살리게 하셨다. 특히 월명동 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 하고 선생의 입을 통해 소리를 지르셨다. 그러면, 꼭 사고 날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됐다. 이와 같이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은혜투성이’다. <지난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증거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

16. <자기 인생의 연륜>은 짧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연륜’은 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곧,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마다 역사해 주신 것>이 많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다.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해 주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다. 왜? 그냥은 ‘사랑 덩어리 신부’가 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생명들을 길러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사정없이 사랑을 투자하셨다. <사랑>으로 길러야 ‘사랑 덩어리 신부’가 되기 때문이다.

17. <사랑 덩어리>로 만들어야 ‘사랑’을 받지, 그냥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신부’로 만들기 위해 사랑을 한없이 투자해 주셨다는 것이다.

18. <사랑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19. <신약>은 ‘자녀급 시대’로서 ‘신부급, 애인급 사랑’은 할 수 없다. <사랑의 말씀>은 ‘성약 신부 시대’에서만 할 수 있

다. 고로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이성, 저 성 할 것 없이 다 멀리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육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받으신다.

20. 〈과거에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잊고 사는 자〉는 '육적인 자' 가 된다.

21. 〈과거에 하나님이 해 준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늘 그 은혜로 사는 자〉는 '영적인 자' 가 된다.

22. 방언하고 예언하고 불을 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 덩어리로 알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자가 '영적인 자' 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다. 연단이다." 하며 이겨 내기에 신앙이 죽지를 않는다.

23.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냈다.

24. 어려울 때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해결된다." 하고 대답하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지난날 해 준 것을 못 깨닫고 있으니, 좀 깨달아라." 하며 어려운 일이 닥치게도 하신다. 고로 기도하면, 지난날이 생각나서 감사하게 된다.

25. <지난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현실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26. 감사해야, '현실'에서 열매를 맺고 얻게 된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 '현실'에도 잘했다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7.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난날을 꼭 생각해라. <지난날을 생각하는 것>은 '계시'와도 같다. 지난날과 같이 작전할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해라." 하셨다.

28. 어느 정도로 지난날을 생각해야 하는고 하니, '예수님 때 해 주신 것'까지도 고마워하고 삼위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 왜? <신약역사>가 아니면 '성약역사'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태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29. 지난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 자꾸 물어보고 배워야 한다.

30. <월명동을 살 때>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는 주인이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다. 그때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땅을 살 때는 <지역 전체>를 '한 여자'로 보고 샀다. 한 여자를 차지할 때는 '손'만 차지해도 안 되고, '다리 한

쪽’ 만 차지해도 안 된다. 고로 전체 땅을 한 명의 여자로 보면서 사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사서 결국 이제는 ‘한 덩어리’ 가 됐다. 그렇게 되기까지 15년, 20년 정도가 걸렸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이같이 어렵게 해 왔다는 것이다. 신앙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육적인 죽을 고비도 넘기며 왔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권에서 나가서 사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31. <지난날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된다.

32. 지나갔다고 해서 ‘애굽 땅을 지나왔는데 뭘 생각해?’ 하면 안 된다. <지난날의 것>은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날’ 을 꼭 생각해야 한다.

33. 지난날같이 해야 사탄도 모르고 적들도 모르니, 그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난날을 늘 생각해라.” 하고 말씀하시며 ‘현실’ 에서 역사해 가고 계신다. 고로 늘 지난날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34. <모르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적들이 많았을 때>는 모르고 사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지나갔기에 “지난날 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하자.” 하며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비밀이라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애굽

을 벗어나 〈가나안 복지에 와 있을 때〉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35. 선생도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다 끝나고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복지로 왔기 때문에 지난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36.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땅을 사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다. 〈동그래산을 살 때〉는 주인이 죽어도 안 팔겠다고 해서 각종으로 작전을 해서 샀다. 〈성령 폭포 자리를 살 때〉는 주인이 그 땅을 안 팔려고 아예 터를 닦고 집을 지어 놓기도 했다. 고로 눈물겹게 40일 조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40일째 되는 날 꿈에 '하얀 뱀을 잡는 것' 을 보이시며 그 땅을 허락한다는 계시를 보여 주셨다. 그때 비싸게 주고 땅을 산 것이 분해서 '이 산에 보물이 있는가?' 하고 돌아다닐 때, 500톤짜리 바위를 발견했다. 하나님은 "이것 하나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 소견이 좁으냐?" 하셨다. 그 산은 '성령' 같이 생겼기에 거기에 〈성령 폭포〉를 만들어 놓았다. 앞산에는 〈하나님 폭포〉를 만들어서 두 폭포가 '한 짝' 이 되게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

37. 〈지난날〉과 〈지금〉은 마치 '난자' 와 '정자' 와 같다. 둘이 하나로 합해져서 '생명의 역사' 가 계속 돌아간다.

38. 〈지난날〉을 생각하면, '은혜' 가 오고 '은총' 이 온다. 지난날 미련 없이 밀어붙이며 행했기에 '현실' 에서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러니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라. 태만하

면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늙어 버리니, '이제 10년밖에 못 산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다.

◎ 기도하겠습니다.